

음란물 교육의 내용과 방향

김언정(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

1. 교사들이 음란물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는 몇가지 이유

1. 교사들(특히 여교사들)이 음란물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여교사들에게 음란물(포르노)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한국의 에로영화를 본 경우를 포함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손을 든다. 나머지는 젓소부인 시리즈도 아직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들은 이미 하드코어 포르노를 다 떼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하드코어 포르노를 보여주면 기겁을 할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러운 걸 내가 왜 봐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나쁜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어떻게 나쁜 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포르노는 이제 각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아이들이 너무나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음란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나 교사가 음란물에 대해 모른 채로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 하에서 음란물 접근방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되는 일일까? “어른들은 다 보면서 우리는 왜 안되느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왜 나쁜지 뭐가 나쁜지를 이야기하려면 교사와 부모가 먼저 그 내용을 봐야 된다.

2. 교사들이 남학생들의 경우는 사춘기 시절에 있을 수 있는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교사들이 아직 한국의 에로영화도 한편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반면에 남교사들

은 대부분 사춘기를 거치면서 아이들과 비슷한 성적 호기심과 성적 표현물에 관심을 가져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성적 충동과 욕구에 관대한 한국의 성문화 속에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자유롭게 음란물을 보고 즐긴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한국의 성문화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남교사와 남학생들의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남교사 스스로 음란물의 문제점을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음란물에 관련된 질문을 받더라도 그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성장과정 중의 하나로 치부하면서 ‘너무 많이 보지는 말아라’는 정도의 충고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교사들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즐겨왔던 음란물(포르노)를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성들이 열광하는 부분에 여성들은 왜 혐오감을 느끼는지, 스스로의 경험을 돌이켜 음란물(포르노)의 남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나서야 아이들에게 음란물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3. 음란물을 보지 않은 순진한 아이들까지 호기심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음란물에 관해 “절대로 보지 말아라”는 이야기 말고는 하기가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음란물을 볼 수도 있지” 내지는 “또 보면 어쩌냐”는 식의 이야기는 학교 내부의 검열에 걸릴 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란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교사와 학생이 같이 보면서 서로의 느낌을 나누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리 본 아이들의 경험만 가지고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보지 않은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겨 음란물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어떠랴. 그 수업에서 교사가 음란물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잘 전달했다면 처음으로 음란물을 보게 되는

그 아이는 교사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게 될 것이고 비판력을 가지고 보게 된 매체는 더 이상의 흥미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음란물을 접하게 될 아이들이라면 미리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뜯어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II. 음란물(포르노)의 정의¹⁾

어디까지를 음란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무엇을 음란물을 보는가는 각 개인의 경험과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 혹은 포르노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노골적인 남녀의 성교 장면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디오를 연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나체의 여성 사진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포르노를 합의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란 어렵지만 내용에 따라 하드코어와 소프트코어 포르노로 나누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드코어 포르노와 소프트코어 포르노를 구별하는 기준은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인가와 그 내용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가에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 소프트코어 포르노

-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있다하더라도 비폭력적이고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성표현물
- 성기노출이 없는 비폭력적이고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성표현물
- 나체

1) 포르노그래피는 "성적 감정을 일으킬 목적으로 성기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Hunt, 1996)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표현물"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2. 하드코어 포르노

- 폭력적인 성표현물
-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묘사한 성표현물
- 아동 포르노그래피
- 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성표현물(수간, 근친상간, 동성애, 혼음 등)

III. 음란물의 유해성

음란물이 과연 유해한가, 유해하다면 어떤 점에서 유해한가에 대한 논쟁과 이에 관한 연구는 서구에서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1970년 미국의 존슨위원회는 음란물과 포르노그래피가 가지는 해악성을 2년간 연구한 끝에 해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반면 1985년 미국에서 다시 구성된 미즈위원회는 성표현물을 네가지 유형²⁾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폭력적인 성표현물이 ‘강간의 신화’를 조장하며,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존슨위원회와 미즈위원회의 상반된 조사결과는 바로 음란물의 내용의 변화에 기인한다. 존슨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마일드 포르노그래피’로서 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의 성행위를 다소 노골적인 방식으로 보

2) 미즈위원회의 네가지 성표현물은 다음과 같다.

1. 폭력적인 성표현물(Sexually Violent Materials)
2. 인간의 가치저하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폭력적 성표현물(Nonviolent Materials Depicting, Degradation, Domination, Subordination, or Humiliation)
3. 비폭력적 및 비품위손상적인 성표현물(Nonviolent and non-degrading Materials)
4. 나체(Nudity)

여주며 이들 성관계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묘사되었다. 한편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방식의 성행위들(수간, 동성연애 등)에 대한 묘사가 없으며 오히려 이런 행위들은 비극으로서 서술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성교를 기술하거나 구강-성기 접촉 등이 중심이었지 결코 폭력으로 관철되는 또 폭력을 수반하는 성적 자극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에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음란물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순히 남녀가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가 나체로 있고, 혹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며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성행위일 때에는 그다지 해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행위들이 폭력과 연결되거나 여성비하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골적이라고 해서 성표현물 모두가 나쁘고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입장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직 그렇게 대안적인 성표현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몸을 또는 성행위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이라기 보다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성표현물들의 폭력성과 남성중심성들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Ⅳ. 음란물(포르노)의 문제점3)

: 소프트코어 포르노의 문제점은 하드코어 포르노의 문제점에도 포함된다.

1. 소프트코어 포르노

- (1) 여성을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물건으로 또는 상품으로 제시한다.
- (2) 여성의 몸을 부분으로 나눠 특히 성기와 가슴 그리고 엉덩이 부분을 확대하

3)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중에서 ‘슬라이드: 인터넷, 만화, 비디오에 나타난 음란물’(김지혜, 1997)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다.

여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몸 전체를 부분으로 축소하여 재현한다.

2. 하드코어 포르노

(1) 성기중심적인 성을 보여준다.

포르노에 나타난 성은 오로지 성기가 중심이 되면서 정서나 인격, 애정, 상대에 대한 배려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성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섹스, 성기와 성기, 그 대응품들에 의한 다양한 결합으로만 나타난다. 음란 비디오의 경우를 보면 성행위의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성기부분만이 확대되어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만화나 사진에서도 다양한 자세로 성기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는 성이 다양한 인간관계의 한 측면임을 간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 남성중심적인 성을 보여준다.

포르노를 만들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인 관계로 포르노에서 드러나는 성은 남성중심적이다. 남성의 몸보다는 주로 여성의 육체(가슴, 성기)를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고, 신음소리도 여성의 소리를 더욱 강조시킨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 위 혹은 여성의 입에 사정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사정의 액을 보여주고 남성의 배설물을 여성들이 게걸스럽게 먹는 장면들을 통해 남성성을 과시하게 된다. 또한 항상 사정으로 성행위가 끝남으로써 모든 성행위가 남성의 욕구충족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3) 탐닉의 대상으로서의 성을 강조하며 성의 쾌락적 부분만을 강조한다.

포르노에서 나타나는 성행위는 단지 누구나와 즐길 수 있는 놀이로 묘사되면서 그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피임, 임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모든 성행위는 짜릿한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를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누구든 상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피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쾌락을 위해 누구와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4) 가학적이고 강간과 유사한 형태의 성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많은 경우 음란물에서의 성행위는 가학적이며, 강간과 유사한 형태로 묘사된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일본의 음란물 중에는 길가는 교복 입은 여학생을 납치해서 자신의 집에 묶어두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들도 있다. 이것이 연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는 독자들은 실제상황으로 느끼게 되며 처음에는 반항을 하다가 점차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여성들이 강간을 바란다’는 강간신화와 모든 여성이 사실은 폭력적인 성을 즐긴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

V. 음란물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몇 가지 사실들

1. 음란물에 묘사되는 표현이나 성행동은 과장된 것이다.

광고 중에서 먹는 광고를 보다보면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보인다. 피자 광고에서 피자를 한 입 먹다가 뒤로 넘어간단든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몸이 푹푹 얼어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음란물에 묘사되는 표현이나 성행동도 이처럼 과장된 거라는 것을 알려준다. 여성의 큰 가슴, 남성의 큰 음경, 신음소리,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과장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남성중심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많이 보다 보면 현실에서 여성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남성들 중에서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음란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음란물이 남성중심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란물을 많이 보고 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남성의 경우 음란물에 묘사된 여성의 행동을 여성들에게 기대하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음란물에 묘사되는 것처럼 성행위가 모두 지지분하고 추한 것은 아니다.

음란물을 보고 음란물의 성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음란물을 통해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우연히 보게 된 음란물을 통해 성은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음란물에 익숙한 남성이 여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것처럼 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여성 역시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음란물에 나타난 성 이외에 현실에서의 성을 이야기해주고 정겹고 따뜻한 성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